



생생한 과학기술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다

2016 KITECH 겨울방학 과학캠프 개최

지난 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2016 KITECH 겨울방학 과학캠프'가 진행됐다.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과학캠프에 전국 각지에서 36명의 학생들이 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에서 시작된 '2016 겨울방학 KITECH 과학캠프'는 과학특강과 연구실 투어, 로봇키트 만들기, 체험관 탐방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 뜨거웠던 학생들의 열기,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우주공간에서의 무중력상태를 체험 중인 학생

미래의 과학꿈나무, 한 자리에 모이다

2016년 2월 24일 오후 1시. 생기원 융합생산기술 연구소 대회의실에 학생들이 꽉 들어찼다. 전국 각지에서 '2016 KITECH 겨울방학 과학캠프(이하 KITECH 과학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36명의 학생들이 아침 일찍 채비를 마치고 바로 이곳, 융합생산기술연구소에 모인 것. 중학생(예비중학생 포함)

을 대상으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KITECH 과학캠프'가 비로소 그 시작을 알렸다. 'KITECH 과학캠프'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고, 과학대중화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진행돼왔다.

특히 이번 캠프는 '로봇기술과 융합생산기술에 대한